

2012년 2월 11일 시행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 기출문제

통합한국사 정은초 先生의 정답과 해설

*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 시험이 2012년 2월 시행되었다. 행안부의 7급·9급 시험은 “시험수준 평가관리위원회”의 운영으로 평이하고 정확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간부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지엽적이고 오류가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특히 고려(7문항)와 조선시대(16문항)에 편중하여서 출제하였다. 난이도 조절과 시대별 문항 배정에도 실패하였으며 정답이 애매한 오류문제도 3문항이나 있었다. 고득점 하기에 어려운 문제출제였으며 합격권은 85점 이상이면 안심해도 될 것 같다.

문제출제 시대별 배정과 비중

시대	출제문항	비중
원시사회(4)	4문항	10%
고대국가(6)	6문항	15%
고려시대(6)	7문항	17.5%
조선시대(10)	16문항	40%
근대사(10)	5문항	12.5%
현대사(4)	2문항	5%

1. 다음 중 우리나라 구석기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와 그 주변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 부터이다.
- ② 처음에는 찍개 같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뿔석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용도가 뚜렷한 작은 석기들을 만들었다.
- ③ 주먹도끼, 찍개, 팔매돌 등은 사냥도구이고 굽개, 밀개 등은 대표적인 조리 도구이다.
- ④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평남 상원 검은 모루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서울 암사동, 충남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정답: ④

해설: [난이도 中: 통합한국사 테마1 구석기 시대] 서울 암사동은 구석기가 아니라 신석기 유적지이다. 여기서 신석기 시대의 주거양식인 움집 집터와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2. 다음의 설명에 대한 유적으로 옳은 것은?

ㄱ. 국보 제285호로 지정된 암각화이다.
 ㄴ. 최근 이 유적의 보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ㄷ. 사슴, 고래, 거북, 물고기, 호랑이, 멧돼지, 곰, 성기를 노출한 사람의 모습 등과 함께 배와 어부의 모습, 사냥하는 장면 등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

- ① 울주 천전리 암각화 ② 울주 대곡리(반구대) 암각화
- ③ 고령 양전리 암각화 ④ 영일 칠포리 암각화

정답: ②

해설: [난이도 中: 통합한국사 테마3 청동기 시대] 상자 안의 ㄱ에서 암각화를 출제하겠다

공도”이다. 이것은 6C 남조 중 하나인 양나라에 파견된 백제 사신의 모습을 해설한 그림이다. 삼국 중 백제의 의복이 세련되고 문화가 발달한 것은 중국 남조와의 교류에 영향 받은 바 크다.

8. 다음은 신라에서 세운 비석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북한산비 ㄴ. 울진 봉평비 ㄷ. 단양 적성비 ㄹ. 영일 냉수리비

- ① ㄱ은 네 비석 가운데 가장 늦게 세워졌다.
- ② ㄴ은 진흥왕대에 동해안 방면으로 북진하면서 세운 것이다.
- ③ ㄷ은 지방민들 사이에 벌어진 재산 분쟁에 대한 처결 내용을 적은 것이다.
- ④ ㄹ은 인근 지역 산성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답: ①

해설: [★★★ 중요, 난이도 上: 통합한국사 테마24 우리나라 금석문] ㄹ. 영일 냉수리비(지증왕) - ㄴ. 울진 봉평비(법흥왕) - ㄷ. 단양 적성비(진흥왕) - 순수비 중 북한산비(진흥왕) 따라서 네 개의 비석 중 북한산비가 가장 늦게 세웠다. ② 울진 봉평비(ㄴ)은 법흥왕대에 동해안 방면으로 북진하면서 세운 것이다. ③ 영일 냉수리비는 지방민들 사이에 벌어진 재산 분쟁에 대한 처결 내용을 적은 것이다. ④ 금시초문이다. 출제자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9. 다음 글을 읽고 ()에 알맞은 인물을 고르시오.

화엄종에서는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여서 우주만물이 서로 융통하고 화해하며 무한하고 끝없는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 신라의 승려 ()은(는) 일본에 건너가 화엄교리를 강의하고 일본 승려 양변(良辯)에게 법을 전하여 일본의 화엄종을 일으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 ① 원효 ② 자장 ③ 심상 ④ 의상

정답: ③

해설: [난이도 上: 통합한국사 테마29 불교전파 정리] 해동 화엄종을 개창하였고 그의 대가는 의상이지만(④) 이를 일본에 건너가 보급시킨 승려는 심상이었다. ①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와 정토신앙으로서 내세를 강조하였고, ② 자장은 당에서 계율종을 전하여 우리나라 5교 중 하나인 계율종을 창시하였다.

10. 발해의 여러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조영은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서 발해를 건국하였다.
- ② 선왕 때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 ③ 문왕 때는 수도를 상경에서 중경으로 옮겼다.
- ④ 무왕 때는 장문휴가 이끄는 수군이 당의 산둥지방을 공격하였다.

정답: ③

해설: [난이도 中: 통합한국사 테마19 발해의 위대한 왕들] 문왕 대흠무는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고 이것은 지배체제의 정비를 반영한 것이다. 문왕이 757년 처음으로 중경에서 상경으로 이동하여 수도를 삼았으며 785년 잠시 동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후 성

왕때 다시 상경으로 돌아와 오래 동안 발해의 수도가 되었다. ① 고왕인 대조영은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였고 산성 아래 영승에 도읍을 정하였다(구국, 舊國). 그러나 무왕대를 거쳐 문왕은 다시 중경으로 이동하여 수도를 삼았다. ② 선왕 때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여 영토의 최대 판도를 이루었으며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고왕	무왕	문왕	성왕	멸망
동모산(영승, 구국)	=====>	중경 => 상경 => 동경	=> 상경	=====>

11. 고려시대의 행형(行刑)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성(同姓) 간의 혼인을 금지하였다.
- ② 유배지 선정에서 본관 지역을 배제하였다.
- ③ 신체형으로 태형과 장형, 궁형을 시행하였다.
- ④ 동(銅)을 납부하여 처벌을 면제받는 제도가 있었다.

정답: ④

해설: [★경찰경향문제, 난이도 上: 통합한국사 테마53 고려, 조선시대 여성의 삶] 고려 초기에는 통일신라의 율령을 답습하였는데, 왕권이 안정되면서 독자적인 율령을 제정하였다. 《고려사》 형법지에는 당나라 제도를 채용하여 71개의 형율을 제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고조선 시대 8조금법의 속전제도(贖錢制度, 돈을 내고 속죄받는 제도)는 삼국시대에 이어 고려시대로 계승되었다. 이 속전제도는 당의 대명률에도 있어서 함께 영향을 받았다. 보기 ④ 동(銅)은 동전을 말하며 면죄는 속죄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의 벌금제도라 하겠다. ① 고려시대에는 동성혼과 근친혼이 유행하였다. 고려 후기 점차 근친혼의 범위가 줄어들고 동성혼도 금지(1309년 금지령)하였으나 여전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성(同姓) 간의 혼인 금지가 잘 지켜진 것은 조선시대였다. ② 형벌 중에서 귀향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유배지 선정의 첫 번째는 본관 지역이 선정된다. ③ 신체형으로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을 시행하였다. 궁형은 생식기를 절단하거나 봉하는 사형 다음가는 극형으로서 고대 중국에서 시행되었다.

12. 고려시대 진휼기구인 의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의창 설치 이전에는 흑창(黑倉)을 두어 빈민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
- ② 사헌부의 감독 아래 흥년에는 시가보다 싼 값으로 곡식을 판매하였다.
- ③ 의창에서는 무상으로 곡식을 나누어주는 진급(賑給)도 시행하였다.
- ④ 의창의 곡식을 확보하기 위해 공전과 사전에서 의창미를 납부하게 하였다.

정답: ②

해설: [난이도 中: 통합한국사 테마36·134] 어사대의 감찰 아래 삼사 등의 기구가 의창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는 설과 의창이 상평창과 함께(후에는 상평창이 의창의 기능을 모두 떠맡음) 실제로 물가조절기구 역할을 하였으므로 경시서가 감독기구였다는 설이 있다. 사헌부는 비록 고려 말에 등장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감찰, 탄핵기구였다. ① 태조때 흑창(黑倉)을 두어 빈민에게 곡식을 빌려주었고 성종때 의창으로 개칭하였다. ③ 관곡(官穀)의 진급(賑給) 혹은 진제(賑濟)는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각종 재해로 인한 빈곤 백성들에게 배급하여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공전 일결(一結)에서는 조 3두(斗), 사전이라 할 수 있는 사원전·양반전에서는 조 2두, 군호·기인으로부터는 조 1두를 거두어 주·현(州縣)의

의창에 충당하였으며, 충렬왕과 우왕 때에도 연호미를 거두어 의창의 재원으로 하였다.

13. 고려의 대 거란 외교 정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 ① 고려와 요의 전쟁 결과 요의 영역은 압록강 서쪽으로 국한 되었다.
- ② 2차 전쟁에서 고려 국왕의 친조가 강화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 ③ 고려는 요와의 지계(地界) 협상에서 고구려 역사 계승을 주장 하였다.
- ④ 고려는 송과 요 사이에 세력 균형을 이루어 능동적인 외교를 시도하였다.

정답: 정답없음 (경찰청 정답가안: ①)

해설: [★★★ 중요, 난이도 亂: 통합한국사 테마39 고려의 대외항쟁] ① 고려와 요의 전쟁 결과 요는 압록강 이남인 강동6주 지역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요의 영역은 압록강 동쪽이 아니라 서쪽지역이 된다. ‘국한되었다.’라는 표현은 참으로 애매하다. 그러나 이동사가 압록강(혹은 다른 강) 서쪽이나 아니면 동쪽이나를 한정짓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동쪽(여진족의 영역)은 확실히 틀린 답이므로 서쪽 표현은 맞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는 압록강 하류를 고려가 확보하고 압록강 중상류 부근 지역은 요의 영역이므로 압록강 서쪽으로 국한되었다는 표현이 틀렸다고 출제자가 주장한다면 그의 사고 영역과 국어적 표현의 연결이 매우 치밀 혹은 소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강조의 정변 구실로 침략한 요의 2차 전쟁에서 고려 현종의 친조(국왕이 직접 타국의 왕에게 나아가 조공을 바치는 것)가 강화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③ 특히 고려는 요와의 1차 전쟁에서 안용진 담판을 통해 고려의 고구려 계승을 주장하였고 압록강 하류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④ 고려와 요의 전쟁 결과 삼국은 세력균형을 이루었고 이는 고려의 능동적인 외교술이라 할 것이다.

14.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명왕의 일은 변화·신이로써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시한 신기한 사적이니 이것은 서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나라라는 사실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 ①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 ② 고금의 예문을 모은 「상정고금예문」을 편찬하였다.
- ③ 그의 시와 글을 모은 「동국이상국집」이 남아 있다.
- ④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한 「제왕운기」를 저술하였다.

정답: ③

해설: [난이도 上: 통합한국사 테마56 고려시대 사관의 흐름, 테마57]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은 현존하며 그 안의 ‘동명왕편’에 대한 설명이다. ① 김부식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② 최윤의 등이 고금의 예문을 모은 「상정고금예문」을 편찬하였으나 전하지 않는다. 이규보는 이러한 사실을 동국이상국집에 설명하였다. ④ 이승휴는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한 「제왕운기」를 저술하였다.

15. 다음 글을 올린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신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였고, 임금 자리를 꺾어 화의 불길이 커져 백성이 살 수 없으므로 신 등이 일거에 소탕하였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시어 태조의 바른 법을 좇아 행하여 중흥 하소서.

- 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대몽항쟁을 추진하였다.
- ② 마별초와 삼별초를 조직하여 무력기반을 크게 확충하였다.
- ③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 ④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치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정답: ④

해설: [난이도 中: 통합한국사 테마44 최씨정권과 무신정권] 상자 안은 최충헌이 명종에게 바친 ‘봉사10조’에 관한 내용이다. 최충헌은 군사기구로 도방을 부활하고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최고의 정치 권력기구로 만들었다. ① 최우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대몽항쟁을 추진하였다. ② 최우는 마별초와 삼별초를 조직하여 무력기반을 크게 확충하였다. ③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16. 고려후기에 활동한 밀줄친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사는 「묘종」을 설법하기 좋아하여 언변과 지혜가 막힘이 없었고 대중에게 참회 수행을 권하였다.....(중략).....왕공대인과 지방 수령, 높고 낮은 사부 대중 가운데 결사에 들어온 자들이 300여 명이나 되었고, 가르침을 전도하여 좋은 인연을 맺은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 ① 정토왕생을 중시하고 보현도량을 개설하였다.
- ② 화엄사상을 수용하고 부석사를 건립하였다.
- ③ 교관검수를 제창하고 국청사를 창건하였다.
- ④ 돈오점수를 주장하고 수선사를 주도하였다.

정답: ①

해설: [★★★ 중요, 난이도 上: 통합한국사 테마54 조계종과 천태종] 사료의 핵심인 결사 운동은 고려 무신기간 동안 시작되었고 대표적으로 조계종에서는 보조국사 지눌, 천태종에서는 원묘국사 요세가 시작하였다. 요세는 진정한 참회인 법화신앙과 내세를 중시하는 정토신앙을 강조하였다. ② 의상 ③ 의천 ④ 지눌

17. 다음과 같은 사회 현상이 일어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당시에 곽령구, 내수, 친구까지 다 사전(賜田)을 받아서 그 중 많은 자는 수백 곁에 이르렀다. 그들은 보통 농민을 유인해서 전민으로 만들고 또 민전으로서 그 부근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전조를 거두어들였으므로 주현에서는 세납이 들어올 곳이 없었다.

- ① 중추원이 밀직사로 격하되었다.
- ② 송설체라는 새로운 글씨체가 도입되었다.
- ③ 발농사에서 2년 3작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 ④ 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쇄한 의례서가 간행되었다.

정답: ④

해설: [난이도 上: 통합한국사 테마105 글씨, 서체의 역사] 곽령구란 몽골의 공주를 따라 온 개인 몸종을 의미하고 내수는 내시, 친구는 친인을 말한다. 따라서 상자 안은 원간섭기의 사실이고 ④는 원 간섭기 이전인 무신정권기(1170-1270년)로서 최초의 금속활자로 최윤의 등이 인쇄한 고금상정예문(1234년)이 간행되었다. ① 원의 강요로 중추원이 밀직사로 격하되었다. ② 원나라 사신 조맹부의 송설체라는 새로운 글씨체가 도입되었다. ③ 고려 후기인 원간섭기 발농사에서 2년 3작 윤작법이 보급되었다.

18. 조선의 건국과 발전에 관한 아래의 사항들이 시대순으로 바르게 정리된 것은?

- | |
|---|
| 가. 왕위 계승의 진통으로 두 차례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나. 「경국대전」과 「동국통감」 등 서책의 편찬이 완료되었다.
다. 공법(貢法)을 제정할 때 찬반 여부를 물었다.
르. 계유정난 이후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
|---|

- ① 가-나-다-르 ② 가-다-르-나 ③ 다-르-나-가 ④ 다-가-나-르

정답: ②

해설: [난이도 下: 통합한국사 테마63 조선 초기의 군주] 가 태조 - 다 세종 - 르 세조 - 나 성종

19. 조선전기의 군대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군역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역법을 만들었다.
- ② 지방군으로 속오군이 편성되어 양인과 함께 일부 노비가 참여하였다.
- ③ 정규군 이외에 서리, 노비, 잡학인 등으로 구성된 잡색군이 있었다.
- ④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포수와 활 그리고 창을 사용하는 삼수병제를 갖추었다.

정답: ③

해설: [난이도 中: 통합한국사 테마82 조선시대 군역제도] 조선시대 잡색군에는 농민이 참여하지 않았다. ① 군역법은 조선 후기 영조때 시행되었다. ② 지방군으로 속오군 편성은 임란 이후인 조선 후기의 일이다. ④ 5군영의 핵심군단인 훈련도감(삼수병제)은 조선 전기의 5위의 개편 중 하나로서 조선 후기에 설치되었다.

20. 조선전기의 농업 관련 서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희맹은 금양(시흥)지방의 농사경험을 토대로 「금양잡록」을 저술하였다.
- ② 신숙은 중국 강남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받아들여 「농가집성」을 편찬하였다.
- ③ 강희안은 원에서인 「양화소록」을 저술하여 다양한 화초재배 방법을 소개하였다.
- ④ 정초 등은 전국 각지의 노농(老農)들의 실제 경험을 수집하여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정답: ②

해설: [★★★ 중요, 난이도 中: 통합한국사 테마84 조선시대 농업제도] 신숙은 중국 강남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받아들여 조선 후기인 17C 「농가집성」을 편찬하였다. ① 성종 ③ 세조 ④ 세종

21. 다음 <표>는 조선의 중앙정치기구와 직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표>

관부	직무	별칭/별명
승정원(承政院)	㉠왕명출납, 비서기능	은대(銀臺)
홍문관(弘文館)	궁중도서관리, 경연	㉡삼사(三司)
사헌부(司憲府)	감찰기관	
사간원(司諫院)	간쟁 및 언론기관	
교서관(校書館)	㉢국왕 교서 작성, 역사기록	운각(芸閣)
승문원(承文院)	㉣외교문서 작성	괴원(槐院)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정답: ③

해설: [난이도 中: 통합한국사 테마65 조선시대 중앙관제와 관품] 국왕의 교서를 작성한 곳은 예문관이며 역사를 기록한 곳은 춘추관이었다. 교서관은 궁중 인쇄소의 기능을 하였다.

22. 조선의 대외 교류와 항쟁에 관한 아래의 내용 중에서 바른 것을 고르시오.

- ① 삼포왜란이나 을묘왜변과 같은 왜적들의 소요가 일어나자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 ②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해 사대(事大)외교 정책을 수립하였다.
- ③ 인조반정으로 복인이 집권 한 후 친명배금정책을 수립하였다.
- ④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명나라 정벌에 나섰다.

정답: ①

해설: [난이도 中: 통합한국사 테마69 조선시대 일본과의 관계] 비변사는 처음 삼포왜란(중종)을 계기로 설치되었으나 왜적들의 소요가 계속되자 을묘왜변(명종)을 계기로 상설기구화 되었다. ② 조선시대 사대(事大)외교 정책은 명나라와의 관계이고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을 수립하였다. ③ 광해군이 즉위하여 복인정권이 수립되었으나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 한 후 친명배금정책을 추진하였다. ④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청의 전신인 후금 정벌에 나섰다나 실제 실행하지는 않았다.

23. 조선시대의 관리 등용 제도인 과거 시험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 ① 과거에는 문관을 뽑는 문과와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 ② 정기 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 시험인 증광시와 알성시 등이 있었다.
- ③ 문과 식년시의 경우 1차 시험에서는 도별 인구비례로 뽑았다.
- ④ 조선전기에는 양인이나 천인 모두가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정답: ④

해설: [난이도 下: 통합한국사 테마87 조선시대 과거제도] 조선시대 과거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천인은 과거 응시 자격이 없었다.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였으나, 무과와 잡과에는 제한이 없었다. ① 승과도 있었다. ② 식년시는 보통 3년에 한번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부정기 시험의 남발로 합격자가 너무 많아져서 당쟁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③ 문과 식년시의 경우 1차 시험인 초시는 각 도의 인구비례로 240명을 선발, 2차 시험인 복시에서 최종합격자 33명을 뽑았다.

24. 다음은 16세기 중엽의 사회상을 나타낸 기록이다. 당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이 부정을 저지르는 탓이며, 수령의 부정은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다. 지금 재상들이 부정을 저지르니, 수령은 백성의 피와 땀을 짜내 권력층을 섬기고 돼지와 닭을 마구 잡는 등 못하는 짓이 없다. 그런데도 가난한 백성은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도적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다. 그러므로 너도나도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에 몸을 던져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사람의 재물을 빼앗으니, 이 어찌 백성의 본성이겠는가. 진실로 조정이 맑아서 재물을 밝히지 아니하고, 수령 또한 이 같은 사람을 임명한다면, 칼을 잡은 도적은 송아지를 사서 농촌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추적해 체포하는 대로 또 뒤따라 일어나 앞으로는 다 붙잡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명종실록」

- ① 수확량의 1/4을 토지세로 징수하였다.
- ② 방납으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도망하기도 하였다.
- ③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 ④ 백성 사이에 비기, 도참설이 널리 퍼지고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져 갔다.

정답: ②

해설: [난이도 下: 통합한국사 테마83 대동법] 공납제도의 문제점인 방납과 대납이 16C 유행하여 이에 대한 부담으로 유망민이 생기기도 하였다. ① 수확량의 1/10을 토지세로 징수하는 것이 수세의 원칙이었고 그 이후 공법(수등이척법)이 시행되어 1결당 4두에서 20두를 수세하였다. ③ 17C 초기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인이 등장하였다. ④ 19C 조선말기 세도 정치의 부패로 백성 사이에 비기, 도참설이 널리 퍼지고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져 갔다.

25. 다음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전쟁이 일어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광해군을 섬긴 역적의 자손 신궁(神弓) 남이와 그 누이 자인. 어렵사리 맞이한 자인의 혼인날 청나라 정예부대의 습격으로 자인과 신랑 서군이 포로로 잡혀가고 만다. 남이는 아버지가 남겨준 활에 의지해 청군 진영으로 숨어들어 자력(自力)으로 자인을 구하고자 한다. 날아오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곡사를 사용하는 남이와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육량시를 사용하는 청의 명장 주신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사상 최대의 활 전쟁을 시작한다.

- ① 청의 무역 확대 요구를 조선이 거부하였다.
- ② 서인계열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요동 정벌 준비에 청이 자극을 받았다.
- ③ 만주족 사신이 귀국길에 피살된 사건을 구실로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였다.
- ④ 청의 군신 관계 요구에 대해 주전론이 우세하였다.

정답: ④

해설: [※ 최근 출제 경향, 난이도 上: 통합한국사 테마74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최근 영화 “최종 병기 활”을 상정하고 출제된 문제이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명에 대한 사대사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해군은 성장하고 있던 후금에 대해 중립외교를 시행하였다. 후금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운 뒤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조선의 조정에서는 청에 대해 전쟁을 하자는 주전론(윤집 등)과 일단 요구를 들어주자는 주화론(최명길 등)으로 나뉘게 된다. 주전론으로 국론이 정해졌으나 제대로 전쟁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의

침입(병자호란)으로 국가 폐망의 위기에서 인조는 청에 항복하였다(삼전도의 굴욕외교). 이후 청에 대한 북벌사상은 더욱 팽배해졌다.

26. 조선후기에는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하자는 북벌(北伐)사상이 중심을 이루면서도 서서히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北學)의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아래에 제시된 내용 중 북학 사상과 연관이 되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
| ㄱ. 송시열의 유지(遺志)에 따라 괴산에 만동묘(萬東廟)를 세웠다.
ㄴ. 사행에 참여한 자제군관(子弟軍官)들이 청나라 문물을 보고 왔다.
ㄷ. 의리, 명분 보다는 이용후생(利用厚生)에 관심을 가졌다.
ㄹ. 창덕궁 안에 대보단(大報壇)을 설치했다.
ㅁ. 조선이 중화(中華)라는 소중화사상이 발전하였다. |
|---|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③ ㄹ, ㅁ ④ ㄷ, ㄹ, ㅁ

정답: ②

해설: [★★★ 중요, 난이도 中: 통합한국사 테마74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양란을 계기로 명에 대한 사대(존화주의)에 이은 청(여진, 오랑캐)에 대한 응징(북벌사상)이 팽배해 있었으나 점차 오히려 발달된 청을 배우자는 북학사상이 대응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ㄴ과 ㄷ 청을 드나들면서 발달된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과를 중상학과로 부르기도 한다. 중상학과는 이와 같이 명에 대한 의리나 명분 보다는 이용후생(생활의 편리)과 같은 실용적인 면을 내세우는 실학과였다. ㄱ. 만동묘는 명나라 황제를 제사지내기 위한 사당이다. ㄹ. 대보단은 임란때 군대를 보내준 명나라 의종과 신종을 모신 사당이다. ㅁ. 조선이 중화(中華)라는 소중화사상은 명나라 멸망 후 심화되어 청에 대한 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27.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록물을 선정하여 ‘세계기록유산’이라 하고 그 기록물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 ① 「조선왕조실록」-「비변사등록」-「대동여지도」
 ② 「삼국사기」-「삼국유사」-「직지심체요절」
 ③ 「조선왕조의궤」-「훈민정음」-「목민심서」
 ④ 「승정원일기」-「일성록」-「동의보감」

정답: ④

해설: [난이도 上: 통합한국사 테마61 UNESCO세계유산]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는 「승정원일기」-「일성록」-「동의보감」 외에도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팔만대장경,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있다. ① 「비변사등록」-「대동여지도」 ② 「삼국사기」-「삼국유사」 ③ 「목민심서」가 각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아니다.

28.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왕이 죽으면 다음 왕때에 임시로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전 왕대의 실록을 편찬하였다.
 ② 전임사관과 겸임사관이 작성한 사초(史草)와 시정기(時政記) 등을 기초자료로 편찬하였다.
 ③ 임진왜란 이전까지 실록은 춘추관과 오대산, 태백산, 마니산 등의 사고(史庫)에 보관하였다.

④ 포쇄(暴瀉)는 3년에 한번씩, 전임사관이 파견되어 일정한 규례에 따라 시행하였다.

정답: ③

해설: [난이도 中: 통합한국사 테마102 조선왕조실록] 태종 때 태조실록이 편찬되기 시작하여 세종은 4대 사고(춘추관 사고, 충주 사고, 성주 사고, 전주 사고)에 보관하였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전주 사고본만 남고 모두 불타자 이를 복사하여 춘추관 사고, 오대산 사고, 태백산 사고, 마니산 사고, 적상산 사고의 5대 사고를 광해군 때 정비하였다. ① 실록은 왕의 사후에 편찬되었다. ② 사초와 시정기가 1차 사료로 중요시되었지만 그 외에 의정부일지, 승정원일기, 일성록, 상소문 등 다양한 자료를 2차 사료로 참고하였다. ④ 포쇄(暴瀉)는 실록의 병충해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에 한 번씩 꺼내어 햇빛을 쬐이고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다음 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라고 불리기도 한다.
- ② 한·중·일 삼국 이외에 유럽과 아프리카도 그려져 있다.
- ③ 1402년(태종 2년) 이회(李淮)가 제작하고 권근(權近)이 발문을 지었다.
- ④ 아라비아 지도학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세계지도(世界地圖)를 참고하였다.

정답: ①

해설: [※ 최근 출제 경향, 난이도 上: 통합한국사 테마98,101] 상자 안은 태종 때(1402년) 왕명에 의해 이회(李淮), 이무(李茂), 김사형(金士衡) 등이 편찬한 것이 [혼일강리역대국지도(混一疆理域大國지도)]이다.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는 이광정(李光庭)이 가져온 세계지도이다. ②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 발견(콜럼부스, 1507년) 이전이므로 이것은 그려져 있지 않다(함정). 한반도 남쪽에 있는 섬이 일본을 그린 것이고 좌측 끝의 조그만 육지가 아프리카 대륙이며 그 위가 유럽을 표시한 것이다. 가운데 큰 대륙은 인도와 아시아 중국을 함께 그린 것이다.

30. 다음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자기를 제작 시기와 상관없이 배열한 것이다. (가)~(다)양식의 자기가 널리 유행하던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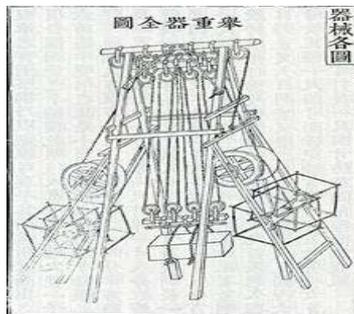
- ① (가) - 용기와 더불어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였다.
- ② (나) -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 ③ (다) - 적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사림 세력이 갈등을 겪게 되었다.
- ④ (가) - 탕평책이 시행되었다.

정답: ②와 ③ (경찰청 정답 가안: ③)

해설: [난이도 상: 통합한국사 테마100 조각, 공예품의 역사] (가)는 분청사기(상감청자 이후 등장 고려말 유행) (나) 청화백자(조선 초 등장 조선 후기 유행) (다) 순수백자(고려말 등장 조선 초 16C 유행) ① 분청사기는 궁중이나 관공서에서 널리 쓰였다. ② 상기 그림은 청화백자 중에서 “청화백자운룡문병”으로서 조선 초기(15C말에서 16C초) 경기도 광주에서 제작되었다. 따라서 경국대전은 조선 전기인 성종(15C 말) 때 반포되었으므로 ②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출제자는 조선 후기의 청화백자 중 “청화백자 용무늬 항아리”를 전제하고 출제한 것 같다. 같은 청화백자이고 용무늬이지만 조선전기는 입구가 좁고 후기는 입구가 넓다. 출제자가 이를 혼동하였거나 잘못된 사진을 삽입하여 출제한 것 같다. ④ 탕평책이 시행된 것은 고려 말이 아니라 조선 후기이다.

	
<p>조선 초기(15C말에서 16C 초로 추정) 보물 785호로 지정된 “청화백자운룡문병”</p>	<p>조선 후기(각각 18C, 19C) “청화백자 용무늬 항아리”</p>

31. 아래 그림의 기구가 만들어지던 임금 때의 시대적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기기도설」 등에 담긴 서양 과학기술이 축성에 활용되었다.
- ② 당시 임금은 실학자들이 고문을 모범으로 하지 않고 패관소품의 문체로 글쓰기를 한다며 자기반성을 요구했다.
- ③ 통공정책을 시행하였다.
- ④ 지도 제작술이 절정에 달해 대축척 지도와 군현지도의 전통이 결합해 조선시대 최고로 정밀한 지도인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졌다.

정답: ④

해설: [※ 최근 출제 경향, 난이도 上: 통합한국사 테마98 조선시대 과학기술] 상자 안의 한자를 보면 세로로 ‘기기도설’ 그리고 기계 위의 한자는 ‘거중기전도’로 쓰여 있다. [기기도설]이란 책은 16C까지의 서양기술을 최초로 중국에 소개한 책으로서 정조대에 정약용이 이를 참고로 거중기를 만들어 한강에 주교를 놓고 수원에 화성을 쌓을 때 참조하였다고 한다. 상기 사진은 “화성성역의궤”에 실려 있는 거중기 설계도이다. ①, ②, ③은 정조대인데, ④는 철종대의 지도이다.

32. 다음 조선후기 실학자 중에서 지구가 회전한다는 지전설을 주장하지 않은 사람은?

- ① 김석문 ② 이 익 ③ 홍대용 ④ 최한기

정답: 없음 (경찰청 정답 가안: ②)

해설: [난이도 亂: 통합한국사 테마98 조선시대 과학기술] ① 서양의 영향을 받아 김석문은 지전설(지구가 하루 한 번씩 자전하여 낮과 밤이 된다는 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하여([역학도해]) 우주관을 크게 전환시켰다. ③ 홍대용은 김석문의 지전설에 영향을 받아 [답헌서]에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② 18C 이익은 처음 [성호사설, 星湖僿說]에서 지구설을 받아들이면서 운동의 상대성에 대한 논의를 들어 지구의 자전 가능성과 지구 구형설을 주장하였으나, 후에 [주역]의 “하늘은 끊임없이 움직인(天行健).”는 말을 들어 성인(聖人)의 말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주장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이익도 지전설을 주장한 적이 있다. 출제자가 확실한 정답을 원하였다면 천동설을 일관되게 주장한 인물이거나 최소한 무관한 인물을 보기에 제시했어야 한다. ④ 최한기는 세계 일주를 직접하며 처음 지구 구형설을 자각하면서 지전설을 인정하였으나 『지구전요』와 『기학』이라는 저서의 출간 이후 그의 주장은 지구 중심의 자전설에서 태양중심의 공전설로 바뀌기 시작했다. 자전과 공전이 결합되어 있는 우주의 실체를 정확히 몰랐던 것이다.

33. 다음의 자료들은 1862년 임술농민봉기에 관한 설명이다. 봉기의 발생배경과 결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아래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제를 부분적으로 개혁하였다.
 ㄴ. 농민들은 소청이나 벽서 등 소극적인 운동을 병행하였다.
 ㄷ.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모순을 변혁시키려 했다.
 ㄹ. 부세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삼정이정책이 시행되었다.
 ㅁ. 반상(班常)의 상징인 군역세가 혁파되고 호포제가 전개되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ㅁ

정답: ②

해설: [난이도 中: 통합한국사 테마79 삼정의 문란과 민란발생] ㄱ. 정부는 농민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기보다 박규수를 안핵사로 임명하여 토벌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압행어사 파견, 삼정이정청 등을 설치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따라서 지주제에 대한 개혁은 외면하였다. 르. 부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수습책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삼정책문을 전국 각 도에 보내, 각 군현에서 상소문을 모아 감영을 통해 서울로 보내게 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 통의 응지삼정소(應旨三政疏)가 도착하자, 삼정이정청에서 이를 수합·검토하여 삼정이정책의 초안을 완성하고, 여러 대신의 의견들을 듣고 수정해, <삼정이정절목> 을 왕에게 올렸다. 소임을 다한 삼정이정청은 철패되었고, 남은 문제들은 비변사에서 거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정이정청에서 마련된 개혁방안은 지방수령과 양반지배층의 반발, 그해 가을의 흉작 등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모. 반상(班常)의 상징인 균역세가 혁파되고 호포제가 전개된 것은 흥선대원군 집정기였다.

34. 1894년에 일어난 다음 사건들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 | | | |
|----------|------------|------------|-------------|
| ㄱ. 우금치전투 | ㄴ. 전주화약 체결 | ㄷ. 청일전쟁 발발 | ㄹ. 흥범14조 반포 |
|----------|------------|------------|-------------|

-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ㄱ-ㄹ ③ ㄷ-ㄹ-ㄱ-ㄴ ④ ㄹ-ㄱ-ㄴ-ㄷ

정답: ②

해설: [★★★ 중요, 난이도 上: 통합한국사 테마116 동학의 추이와 성격] 고부민란 후 향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농민군은 관군과 ㄴ. 전주화약 체결(집강소 설치) - 정부는 청군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텐진조약에 의거 일본군의 출동으로 ㄷ. 청일전쟁 발발 -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우리나라에 갑오개혁을 강요하여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개혁에 착수하였다. 일본군의 궁궐침입에 분노한 동학 농민군이 재차 봉기하여 ㄱ. 우금치전투를 벌였으나 농민군이 패배하였고 정부에는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ㄹ. 흥범14조를 반포하여 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아래는 1894년 거의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중요 사건을 앞 글자를 따서 시대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삼 => 북 => 보 => 고 => 백 => 황 => 장 => 전 => 집 => 교 => 궁 => 청 => 갑 => 공주 => 2차

35. 다음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한말 대표적인 대중 계몽 사회단체로, 1896년 7월 2일 정부의 지원 아래 청의 간섭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여 독립문을 건립하고 독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 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 ② 대성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③ 양전 지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 ④ 한글 전용의 제국신문을 발간하였다.

정답: ①

해설: [★★★ 중요, 난이도 下: 통합한국사 테마123 독립협회] 상자 안은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다.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헌의6조를 의결하였다. ② 신민회 ③ 대한제국 ④ 독립협회는 대조선독립협회회보와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36.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소유권과 가격, 지형, 지목 등을 조선총독이 정한 기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 ② 토지의 매매와 저당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일본인이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였다.
- ③ 명의상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동중, 문중 토지의 상당수는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 ④ 농민들의 입회권을 허용하여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권리가 종전에 비하여 크게 강화되었다.

정답: ④

해설: [난이도 下: 통합한국사 테마126 1910년대 일제의 식민정책] 농민들의 입회권을 허용하여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권리가 종전에 비하여 크게 약화되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거나 강화시켜주지 않았다. 입회권은 공유지에 대해 공유자들이 뺄감이나 풀을 채취하고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주로 소작인들이 관습적으로 인정받았던 권리였다. 그런데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문중이나 자연촌락 등의 공동소유권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입회권 역시 부정되었다.

37.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국 공산당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광복군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 ② 신채호가 쓴 ‘조선 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아 활발한 투쟁을 벌였다.
- ③ 단원인 나석주는 1926년 서울에 잠입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④ 김원봉, 윤세주 등이 반일사상을 높이고 폭력투쟁을 벌여 일제를 타도할 목적으로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하였다.

정답: ①

해설: [* 최근 출제 경향, 난이도 上: 통합한국사 테마148 한말 애국계몽, 독립단체] 일제 강점기 중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정은 주로 프랑스 조차지(외국인 치외법권 지역)인 상해에서 건립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1932년 애국단원이었던 윤봉길 의거는 이러한 활동조차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 임정은 항주 등 7차례 걸쳐 옮겨 다니게 된다. 다만 윤봉길 의거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3.1운동 이후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길림성)에서 조직된 의열단도 그 활동은 주로 상해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임시정부 등 많은 독립단체들이 외교론 등 운운한 방법의 독립운동을 지향한 반면 의열단은 폭력적 민중혁명에 의한 일제타도라는 전술을 내걸고 보다 과격한 방법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다. ①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정부 모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손문의 국민당 정부(호법정부)는 1921년 10월 임정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사실상 승인을 하였으나 연합국과의 관계상(미국의 임정승인 거부) 광복이 될 때까지 임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윤봉길 의거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광복군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38. 다음 법령이 적용되던 시기의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조선인에 한하여 태형령을 적용하였다.
- ②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바꾸도록 하였다.
- ③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④ 일본인의 이민 장려를 위해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정답: ②

해설: [난이도 下: 통합한국사 테마128 1930년대 일제의 식민정책] 상자 안은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정치 시기의 국가총동원법에 대한 설명이다. 민족말살정치 시기에는 창씨개명, 신사참배, 징용과 징병, 정신대 등 우리 민족정신을 압살하고 인명의 커다란 희생을 불러왔다. ① 조선태형령(1911), ③ 회사령(1910), ④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1908)은 모두 1910년대 전후에 시작된 무단정치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39. 다음은 해방 이후의 국내의 정세와 관련된 정치적 사항과 선언에 관련된 것이다. 발생 시기의 순서로 적절한 것은?

- ㄱ.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의 시행된다.
- ㄴ.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ㄷ.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 ㄹ.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 ① ㄱ-ㄴ-ㄹ-ㄷ ② ㄱ-ㄷ-ㄹ-ㄴ ③ ㄱ-ㄹ-ㄴ-ㄷ ④ ㄴ-ㄱ-ㄹ-ㄷ

정답: ③

해설: [난이도 上: 통합한국사 테마151, 153, 161, 155] 1945년 9월 미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제1호(ㄱ) - 1946년 10월 좌우합작 7원칙(ㄹ) - 1948년 8월 15일 제헌헌법(ㄴ) - 건국 직후인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자처벌법(ㄷ)

40.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국제회의의 결의 사항이다. 다음 (가), (나), (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 미, 영, 중 3대 동맹국은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in due course)에 조선을 자유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
- (나) 만약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한 동시 총선거가 불가능하다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다) 조선 임시 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안을 연구 조성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합중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연방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공동 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보 기>

- ㄱ. (가) - 한국의 38도선 분할이 결정되었다.
- ㄴ. (나) - 남북 협상의 계기가 되었다.
- ㄷ. (다) - 소련은 회답에서 모든 정당들을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정답: ②

해설: [난이도 中: 통합한국사 테마150 광복기의 국제회의] (가) - 카이로 선언(1943년 11월), (나) - 유엔소총회(1948년 2월) (다) - 모스크바 삼상회의(1945년 12월). ㄱ. 한국의

38도선 분할이 결정된 것은 카이로 선언(가)이 아니라 얄타회담(1945년 2월)의 결과였다. 나. 유엔소총회에서 남북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면 김구는 북한의 김일성 등에게 남북 협상을 제안하였다. 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은 (조선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에 대해) 모든 정당들을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소련은 반탁을 하는 단체는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